

한국의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과정

최 용 락(숭실대) · 강 인 재(전북대)

1. 서 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제 활동은 국가 및 민간기업들에서 수행하는 경제활동과 유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봉사성, 지역개발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수입재원은 주민들의 조세부담에 의해 획득되는 강제성을 가지며, 경비 지출은 엄정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갖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재정 환경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통제보다는 성과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의 국제사회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재정관리 종합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정책 결과의 대민 공개 및 재정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 유도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방재정관리 제도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기반하여 품목별 통제 위주의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정책목표 및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 간의 연계가 취약하고,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가 미약하며, 예산집행 현황이 품목별로 산재하여 사업수행 결과가 새로운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산부채의 변동내역 파악이 어려워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재정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국제신용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정의 효율화·건전화·투명화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지방재정정보 시스템(e-호조) 구축이 목표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 중심의 예산을 관리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에 따른 국제수준의 재정통계 생성, 제도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업무의 재설계 및 표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원가관리를 통한 성과관리의 정착 및 지방재정 관련 내용의 분석·진단·예측을 통한 위험관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추진성과 등을 살펴 보고, 앞에 설명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구축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 추진 배경

지방재정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은 199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나, 기존 품목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며, 재정업무 처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만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재정 혁신사상의 미흡, 업무프로세스 개선 요구에의 대응능력 부족, 표준화 및 공통연계 서비스의 부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른 정보화 수준 차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사상을 반영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가 추진되었으며, 그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 재정관리 제도의 반영 및 업무혁신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산회계제도는 품목(Line-item)별로 통제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투입되는 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되는 경비 유형별로 집행을 관리·결산하는 미시

적 통제 중심의 예산운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은 이미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체계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나, 인건비·물건비와 같이 경비 성격의 품목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전략적 자원배분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혁신적인 제도를 반영하고, 이에 맞춰 업무와 조직, 법·제도 등의 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종합적 정보화 계획에 따른 체계적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전체 업무영역 중 일부만이 정보화되거나 정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른 정보화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정보 연계 및 공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 업무 전 과정의 정보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수평적·수직적 정보의 공유 및 시스템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에 따라 전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재정관리와 중앙정부재정관리 간의 통합재정관리 기반의 필요성이다. 지방재정은 그 특성상 중앙정부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며, 국가 차원의 통합재정관리 통계 및 분석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재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및 회계과목, 회계기준 등을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화·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제도의 혁신, 지방재정 업무의 상향 표준화, 합리적 정보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기틀의 필요성 때문이다.

3. 추진 경과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는 2004년 9월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를 통해 통합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 완료되었다. 또한 혁신재정제도의 반영, 업무의 표준화 및 재설계, 법·제도의 본격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1년(2007년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다. 또한 2007년에는 통합지방재정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책자 및 파일 형태로 존재하던 지방재정관리와 관련된 과거 데이터들의 전산화를 시작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활용, 지방재정관리 내역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 분석시스템을 구축, 향후 지방재정의 분석·진단·예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표 1]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과제 연도별 사업 추진내역

| 연 도 | 주 요 내 용 | 사업기간 |
|-------|-------------------------------------|-------------------|
| 2003년 | ○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 BPR/ISP | 2003.12 - 2004. 9 |
| 2005년 | ○ 표준재정정보시스템 핵심분야(예산, 지출 등 5개 분야) 개발 | 2005. 5 - 2006. 3 |
| 2006년 | ○ 표준재정정보시스템 전 분야 개발 및 확산·보급 | 2006. 4 - 2006.12 |
| 2007년 | ○ 통합지방재정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7. 5 - 2007.12 |
| | ○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 2007. 7 - 2008. 1 |

1) 1단계: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를 위한 BPR/ISP 수립(2003.12~2004.9)

BPR/ISP 사업은 통합지방재정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업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표준화, 그리고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지방재정관리가 나아가야 할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제시하고, 4대 핵심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관련 제도 변경 및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추진되었다.

[표 2] 통합지방재정관리 정보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 4대 핵심과제 | 세부 추진과제 | |
|--------------|---|---|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 <input type="checkbox"/> 회계계정과목 설계 <input type="checkbox"/> 통합결산 및 재정보고서 | <input type="checkbox"/> 표준거래유형에 따른 자동분개 <input type="checkbox"/> 회계직 독립, 회계감사강화 |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 <input type="checkbox"/> 사업예산업무 정립 <input type="checkbox"/> 예산과목구조의 개편 | <input type="checkbox"/> 사업예산제도를 통한 성과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업별 원가관리 |
| 재무관리능력 강화 | <input type="checkbox"/> 자금관리개선 및 배정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전자고지·수납(EBPP) | <input type="checkbox"/> 채무관리개선 <input type="checkbox"/> 전자자금이체(EFT) |
| 정보화 수준 향상 | <input type="checkbox"/> 표준지방재정관리 정보구조 설계 <input type="checkbox"/> 통합지방재정관리 인프라 구축 | <input type="checkbox"/> 통합·연계체계 <input type="checkbox"/>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 |

2) 2단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핵심분야 개발(2005.5~2006.3)

지방재정관리 정보화 2단계 핵심분야 개발에서는 사업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선진 재정제도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재정계획, 예산관리, 지출 관리, 자금관리, 기준정보관리 등의 핵심분야 정보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다. 특히 한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9개 시범기관에서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3) 3단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 분야 개발 및 확산·보급(2006.4~2007.7)

3단계 사업은 2차로 추진되었다. 1차는 2006년 4월부터 수입관리(보조금 포함), 자산(공유재산·물품연계 포함), 부채(지방채 포함), 계약(G2B(Government to Business) 연계포함), 예산 및 재무결산, 통합결산 및 재정통계 등의 지방재정관리 전체 분야에 대한 개발과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공기업관리시스템, 행정정보화시스템,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관된 내·외부 유관시스템들 간의 물리적 연계가 추진되었다. 2차 사업에서는 2단계와 3단계 1차에서 개발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에 설치했다. 이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시험적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도

품목별로 편성된 24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내역을 사업별 예산제도로 재편하는 시험적용을 진행하였고, 2007년도 2월까지 집행된 재정 정보를 상반기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해 봄으로써 시스템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시험했다.

4) 4단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DB구축 및 고도화(2007.7~2008.1)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존하는 과거의 지방재정 자료들을 전산화하고,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재정 자료들을 활용해 각종 통계 및 재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이며 정확한 재정관리 의사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EDW(Enterprise Data Warehouse)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분석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표준화되었기에 가능했으며,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연감과 같은 정형적인 분석을 비롯해 각종 비정형적인 분석과 과거 자료를 포함한 추이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관리 기능의 추가와 재정관련 모든 정책의 대민 공개를 위한 대민공개시스템, 그리고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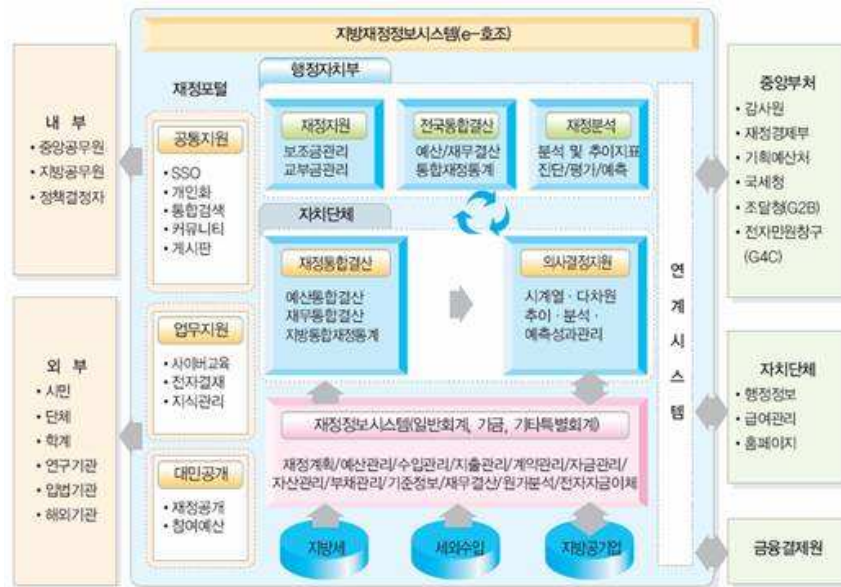
4. 정보시스템 구성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재정정보시스템, 재정통합결산, 의사결정지원, 재정지원, 전국통합결산, 재정분석 및 재정포탈의 7개 하위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념적 구성은 그림1과 같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핵심인 재정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관리의 혁신과체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구축되었다. 재정정보시스템은 크게 예산·결산, 수입·지출, 자산·부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예산·결산 영역에는 재정계획 및 예산관리, 재무결산, 통합재정

통계가 포함되며, 재정계획→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환류(Feedback)체계가 구축되었다. 수입·지출 영역에는 수입관리 및 지출관리, 계약관리가 포함되며,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이르는 수직적 연계를 통해 국비·시비·도비 보조금의 신청, 예산의 교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계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자산·부채 영역에는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부채관리가 해당되며, 선행 업무에서 처리된 정보를 통해 자동적인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성도



재정통합결산 시스템은 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를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향후 지방재정관리의 고도화를 통하여 의사결정 지원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 보조금 및 교부금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의 자동화된 통합·가공을 통한 전국 규모의 전국 통합결산, 재정진단을 위한 재정분석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정정보시스템 예산·결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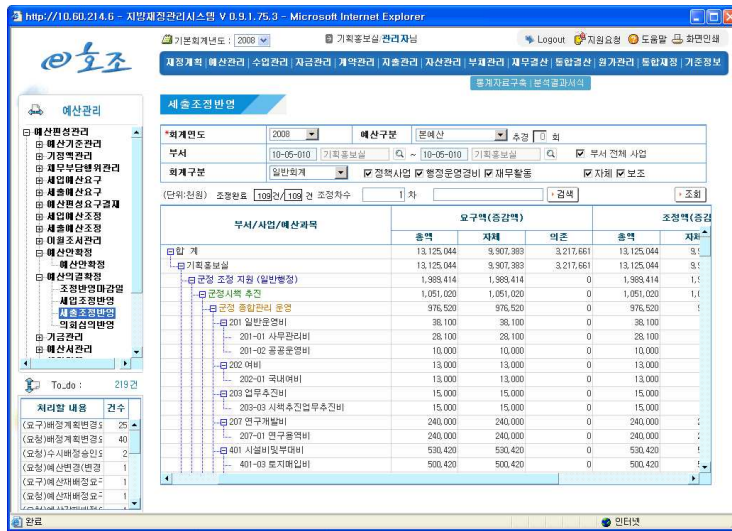
재정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예산·결산 영역은 재정계획, 예산관리, 재무결산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의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최종적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계획은 재정사업을 정의하고, 이 재정사업들을 자치단체 비전(Vision)에 맞게 구조화 할 수 있게 한다. 재정사업은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체계로 구조화되며, 예산은 세부사업 수준에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다. 정책사업의 예산액은 하위에 속한 단위사업들의 예산액으로 정의되고, 단위사업은 하위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예산액으로 정의된다.

예산관리는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변경하는 기능들로 구성된다. 세부사업은 예산 집행 항목들로 산출근거를 가지며, 각 산출 근거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확정된 예산은 배정을 거쳐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사업 간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2]는 예산이 편성된 화면 예시로서, 부서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체계에서 편성된 예산을 나타내고 있다.

결산관리는 회계연도별 결산을 위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의 핵심적인 4개 보고서로 구성된다. [그림 3]은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 예시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통계는 각종 통계 및 현황을 제공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GFS 기준 재정통계 생성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예산관리-예산 편성(예시)



[그림 3] 결산관리-현금흐름보고서(예시)



2) 재정정보시스템 수입·지출 영역

수입·지출 영역은 수입관리 및 지출관리, 계약관리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집행, 그리고 집행에 따른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부처나 광역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교부세, 기금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채권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보조금과 교부세의 경우,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이르는 수직적 연계를 통해 신청으로부터, 교부, 정산에 이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재정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된다. 기금의 경우, 수납, 체납, 과오납 등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서부터 정산에 이르는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그림 4]는 수입관리에서 중앙부처에 일반보조금을 신청하는 화면 예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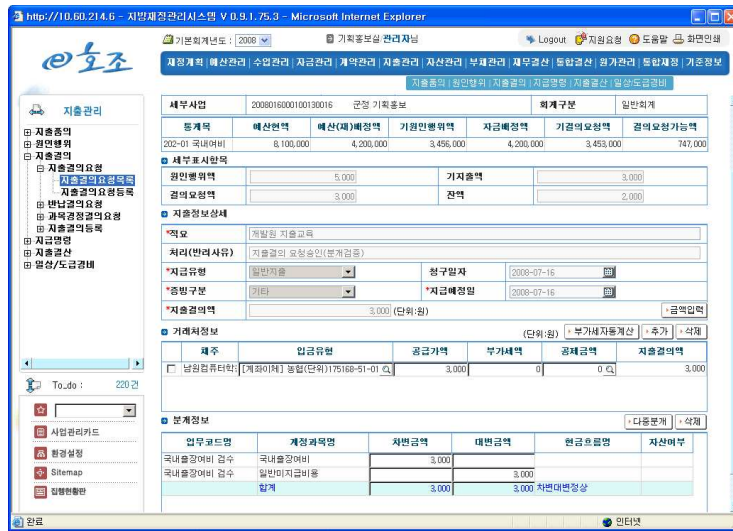
지출관리는 실제 집행을 위한 지출품의에서 원인행위, 지출결의까지의 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후속 업무에서 최소한의 입력만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그림 5]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결의를 요청하는 화면 예시로서, 관련 정보가 지출품의로부터 원인행위를 거쳐 자동으로 지출결의까지 연동됨을 볼 수 있다.

지출 과정에서 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를 통해 계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계약관리는 계약요청으로부터 계약, 검수, 납품, 계약변경, 대금지급 등 계약에 따르는 모든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조달청 등을 통해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4] 수입관리-일반보조금 신청(예시)



[그림 5] 지출관리-지출결의 요청(예시)



3) 재정정보시스템 자산·부채 영역

재정정보시스템 자산·부채 영역은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부채관리로 구성된다.

자금관리는 실제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자금의 계획 및 집행, 자금 배정 등을 포함한다. 자금관리는 재정지출 내부통제수단의 일부로서, 자금배정을 통해 최종적인 재정지출이 마무리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금의 운용 및 조달 관련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6]은 자금수시배정 요구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관리는 고정자산을 관리하고, 자산에 대한 결산기능을 제공한다. 재정지출은 자산의 취득을 수반할 수 있으며, 자산의 시간 흐름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 등 자산의 취득으로부터 처분·손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별로 이루어지나, 자산의 형성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 관리기능을 통해 자산의 형성 과정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채관리는 지방채 및 기타 채무를 관리하고 결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행 및 상환에 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기타 채무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그림 6] 자금관리-자금수시배정 요구(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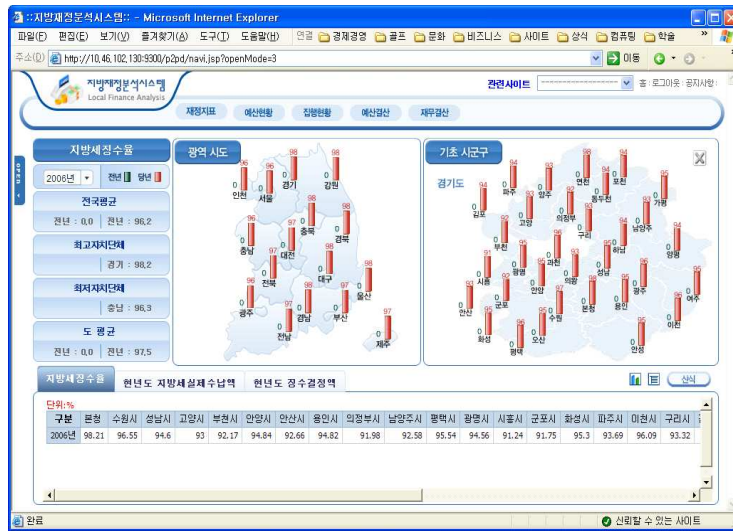
[그림 7] 자산관리-건설중인 자산관리(예시)



4) 재정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반면, 재정분석시스템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재정데이터를 취합·가공·정제하여 각종 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8] 재정분석-재정지표(예시)



[그림 9] 재정분석-세출예산 비정형분석

The screenshot shows the 'Analysis Studio' interface displaying a detailed financial statement table for the year 2008. The table is organized into columns for '2008년' (2008), '2009년' (2009), and '2010년' (2010). The rows are categorized by '당초총계' (Initial Total) and '기금' (Fund). The table includes the following data:

| 당초총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서울특별시 | 1,281,205,000 | 1,843,848,000 | 800,000 | 5,330,000,000 | |
| 부산광역시 | 1,016,236,000 | 977,260,000 | 271,128,000 | 6,000,000,000 | |
| 대구광역시 | 774,700,000 | 1,709,765,000 | | 2,000,000,000 | |
| 인천광역시 | 230,276,000 | 1,929,566,000 | 55,000,000 | 500,000,000 | |
| 광주광역시 | 142,052,000 | 626,680,000 | 8,000,000 | 900,000,000 | |
| 대전광역시 | 143,760,000 | 455,240,000 | 5,000,000 | 300,000,000 | |
| 울산광역시 | 142,760,000 | 223,330,000 | 9,410,000 | 600,000,000 | |
| 경기도 | 2,236,215,000 | 5,398,330,000 | 132,530,000 | 10,000,000,000 | |
| 강원도 | 176,422,000 | 904,866,000 | 34,500,000 | 4,000,000,000 | |
| 충청북도 | 242,820,000 | 557,574,000 | 4,700,000 | 1,500,000,000 | |
| 충청남도 | 411,808,000 | 845,942,000 | 0 | 650,000,000 | |
| 전라북도 | 295,270,000 | 786,068,000 | 6,400,000 | 2,200,000,000 | |
| 전라남도 | 267,803,000 | 427,550,000 | 55,200,000 | 1,000,000,000 | |
| 경상북도 | 372,960,000 | 1,127,460,000 | 100,000,000 | 3,630,000,000 | |
| 경상남도 | 565,249,000 | 1,529,980,000 | 579,000,000 | 2,080,000,000 | |
| 제주특별자치도 | 112,000,000 | 415,980,000 | | 800,000,000 | |
| 자치단체(All) | 8,411,536,000 | 19,759,439,000 | 1,261,668,000 | 45,499,000,000 | |

재정분석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되었으며,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 재정데이터를 월 단위로 취합, 가공·정제 후 사용자들에게 관련 재정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는 크게 지표정보와 현황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표정보는 정의된 산식에 따라 결과값을 계산, 결과 지표 값을 제공하며, 현황정보는 각종 최신 재정업무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제공한다. [그림 8]은 재정지표정보 예시를 보이고 있는데, 좌측에는 광역자치단체 지표 값이, 우측에는 특정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지표 값을 그래프를 활용

하여 가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호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정형분석과 비정형분석 2가지 분석방식을 제공한다. 정형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비정형분석은 정의된 차원(Dimension)과 결과값(Measure)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분석정보를 선택, 다차원-시계열적 분석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9]는 세출예산에 대한 비정형분석 예시를 보이고 있다.

5. 지방재정관리의 정보화 추진 성과

지방재정관리의 효율화·건전화·투명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 지방재정관리 정보화는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명간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오프-라인(Off-Line) 또는 제한적인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업무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어 실시간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업무처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활용되며, 자치단체 내 부서 또는 중앙부처·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8년 6월까지의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활용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현황 ('08.1 ~ '08.6)

| 사용자수 | 접속수 | 예산편성 현황 | 집행 현황 | |
|--------|-----------|------------------------------------|-----------|------------|
| | | | 지급명령 건수 | 지급명령 금액 |
| 97,741 | 7,031,250 | 245개 기관 (미활용 1개 기관은 2009년부터 활용 예정) | 2,896,968 | 51조1,161억원 |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 재정업무의 처리는 업무처리 및 정보공공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직접적으로 절감됨은 물론, 이용자 확대 및 정보의 정확성 향성을 통해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높은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러한 성과는 향후 과거 자료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축적 및 재정분석기반의 확충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08년도 성과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표 4]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화의 성과 예상치

| 구분 | | | '08년도 성과 예상치 |
|-----------|-------------|-----------------|--------------------|
| 대분류 | 중분류 | 성과 지표 | |
| 정부 효율성 | 비용 절감 | 민원처리시간 단축 | 연간 563,920천원 절감 |
| | | 중복자료 수집비용 축소 | 연간 308,586천원 절감 |
| | | 재사용 가능 정보의 수 | 연간 314,563건 |
| | | 정부관리비용 절감 | 연간 11,929,171천원 절감 |
| 이용 활성화 | 이용도 제고 | 이용자수 | 282,022명 |
| | 서비스범위 확대 | 정보 제공 정부기관 수 | 247개 기관 |
| | | 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수 | 3,008개 기관 |
| | |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수 | 3,145,630건 |
| 종합 성과 | | 투자 대비 효과 46.55% | |

6. 지방재정관리 정보화 향후 계획

재정업무 전반에 걸쳐 폭 넓게 활용되고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및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 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향후 많은 개선을 거쳐, 보다 진보된 정보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현재보다 사업관리카드를 개선하여 사업 관련자가 사업의 진행현황 파악 및 업무분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관리카드는 사업의 개요 및 주요 현황을 요약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업무를 실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전자날인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자결재시스템들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도입 및 활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 종류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정보의 연동처리를 위한 개선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 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아가 재정의 내부통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 Transfer)의 도입이다. 전자자금이체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금이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금집행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은 물론 자금취급에 따른 회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기반으로 금고은행 계좌의 실시간 자금과약은 물론,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무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극대화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순환보직에 의해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정보시스템이 태동을 넘어 발전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막 태동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